

연세대 '성폭력 신고전화' 개설

1994. 11. 4

연세대는 3일 교내 성폭력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성폭력긴급신고전화'를 개설하는 한편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에 따라 오는 7일 여학생처(처장 이영 아동학과 교수) 안에 '성폭력긴급신고전화'를 설치해 이곳에 접수된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학칙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연세대는 '성폭력상담위원회'를 구성해 상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관매할 실을 3일 발행했다. 값은 1장에 1백50원이다. 이번에 나온 실은 '방울새' '동박새' 등 20종류로 은색과 백색의 2시트(1시트는 10장)로 되어 있다. 박근혜 기자